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3년 6월 30일(금) --(음력 5월 13일)-- Пятница 30 июня 2023 г. № 25 (1204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지난 5월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 사무실에서 특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돕기 위해 위장 그물을 만들고 있다. 이에 시한인회 회원들만 아니라 주한인여성회를 비롯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나서고 있다. 작업은 매일 이어주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미 위장 그물 5개 콤플렉트를 보냈고 4개는 완성되어 보낼 준비가 되었다. 자원 봉사자들은 이미 5번째 그물을 시작했다.

▲ 왼쪽으로부터: 위장 그물을 만드는 시한인회 회원들인 김태옥 씨, 유경옥 씨, 정금자 씨와 임학순 씨.

(이예식 기자 취재)

###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조국 공로" 훈장 수상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행정실 제 1부실장은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에게 3급 조국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6월 26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총 90명의 유명 인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역 수장들이 참석했다고 "웨도모스티" 매체에서 보도했다.



사진: 사할린 주 정부 홍보실 제공

신문에 따르면 알레리 리마렌코 외에도 알렉세이 치데노브(부랴트공화국), 와실리 울로브(아무르 지역), 로스티슬라브 골드슈테인(유대인 자치주), 블라디슬라브 쿠즈네초브(추코트카) 등 극동 지역 수장 4명이 국가 표창을 받았다.

마라트 후스놀린 러시아 부총리의 추천으로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가 포상된 것은 사할린의 주도시 건설과 특히 노후 주택 재건축 성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사할린, 극동 최대 규모의 항공 터미널 단지 건설 완료

사할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시설 - 신공항의 건설이 완전히 완료되었다. 규제 및 감독 기관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곧 개장할 예정이다. 이 복합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보다 기존보다 5배 많은 연간 최대 500만 명의 승객에게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6월 28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 시설을 방문했다.

현재 공항의 전자 시스템을 조정하고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검사 장비를 테스트 중이며 소매점, 카페 및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다.

"공항의 개장은 모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큰 축하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항공은 우리가 러시아 본토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신공항은 투자 유치, 관광 개발,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시설의 면적은 47,000평방미터가 넘는다. 수용 인원은 시간당 1,600명이다. 연간 최대 5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공항에는 26개의 체크인 데스크, 넓고 편안한 출발 대기 공간, 좌석 근처에 모바일 기기용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다. 극동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길이가 1킬로미터가 넘는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새로운 활주로도 건설 중이다. 해당 활주로는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다. 비행장의 개선 결과로 운항 최소 기상 조건이 감소하여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어 승객 수송량이 증가했다.

### 단신

#### "사할린-2" 프로젝트,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 시운전

"사할린-2" 프로젝트는 6월 28일, 육상 처리 시설의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을 시운전했다. 개막식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비탈리 마르켈로브 "가스프롬" 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세르게이 멘스코브 "가스프롬"의 국장, "미쓰이" 및 "미쓰비시" 대표, 로만 대쉬코브 '사할린 에너지'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함께 통합 가스 체인에 새로운 생산 시설인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 8개국 무역 대표단, 사할린 방문 예정

8개국 무역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한다. 기업가들은 독일,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멕시코, 모로코 왕국, 미얀마 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러시아 무역 대표부와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초청되었다.

대표단과의 면담은 7월 6일 사할린 주 정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노글리키, 사할린주 북부 소수민족 청소년 전통스포츠 대회 열려

지난 27일(토) 노글리키에서 사할린주 북부 소수 민족 원주민 청소년 스포츠대회가 열렸다. 이에 오하, 티몐스코예,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노글리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0세에서 17세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4일 동안 양궁, 창 던지기, 투포환, 도끼 투척, 율가미 던지기, 허들 달리기, 장대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세단 뛰기 및 제자리 멀리뛰기 등의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 사할린 교통부 지도자들, 대학 총장들과 협력 논의

전문가들은 사할린 지역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전공 분야에서 더 나아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사할린주 교통부 수장들은 극동철도대학교와 사할린주립대학교 총장들과 협력 및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사할린주 교통 및 도로 건설부 홍보실에 따르면 교통부와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사할린 연금자 2,400 여명, 항공권 금액 환급 받아

2023년에 이미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2,445명의 은퇴 노인들이 직접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고 휴가지로 여행을 다녀왔다. 러시아 연금사회 기금 사할린 지부는 해당 목적으로 5천만 루블리 이상을 할당했다고 기금 보도부가 밝혔다.

항공권 환급 혜택은 노령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을 받고 북극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비근로 연금 수급자에게 2년에 한 번 제공된다.

<p>새고려신문</p>	<h2>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b>101루블리</b>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편집부)</p>	
--------------	-----------------------------------------------------------------------------------------------------------------------------------------------------------------------------------------------------------------------------------------	--



## 인도 대표단, 사할린 지역 투자 잠재력에 관심을 보여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이 무랄리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인도 총영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주지사는 석유 및 가스 부문, 석탄 산업, 물류 및 인도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사할린-1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해외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가 있고 사할린-3 프로젝트도 전망이 밝습니다. 내년에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단지의 첫 번째 단계를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이미 2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인도 기업들도 광범위한 유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주지사는 총영사와 해양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인도 기업들을 극동 에너지 포럼에 초청했다. 이 대규모 국제 행사는 9월 28~2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사할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여러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러시아 중부 지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이점을 알려야 합니다. 사할린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사명은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사할린 지역 간의 교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이 무랄리가 말했다.

총영사는 인도 기업가들이 석유 및 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 비료 생산 및 화물 운송에도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 무랄리는 외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극동 항만 전문가 대표단에 섬 지역 대표를 초청했다. 기업가들은 인도와 극동 지역의 항구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국가 간 화물과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운송 경로의 전략적 교차로에서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연간 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항공 터미널 단지가 곧 개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대규모 해양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보건 및 농업 프로젝트도 유망하다. 인도 기업과 공동으로 의약품, 제네릭,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할린 농업 산업 단지는 비료 생산 측면에서 흥미로운 곳이다.

## 올해 800명 이상의 사할린 은퇴 노인들, 요양소에서 무료 휴가 보낸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연금자들은 "시네고르스크 광천수(사할린스키에 미네랄니예 워디)"요양소에서 3년에 한 번씩 무료 입소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조치는 비근로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바우처는 거주지의 사회복지 지원 센터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네고르스크 광천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광천수 목욕, 호흡 요법, 진흙 랩 및 기타 여러 시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실은 편안한 숙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무료 바우처로 3주 동안 요양소에 머물 수 있다.

지원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복지 지원 센터의 지점에 문의해야 한다. 방문객은 여권, 고용 기록, 건강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사할린 주 거주 중인 60세 이상 여성 및 65세 이상 남성은 요양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중인 연금은 최

저 생계비의 2.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를 받으려면 건강상 스과 치료에 대한 금기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려면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방문 날짜를 배정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사할린 주 사회 지원 센터의 책임자 알렉산드라 마카로바가 설명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작된 "보살핌, 보호, 존중" 프로젝트에서는 노년층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비근로 은퇴 노인들이 무료 스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약 1,500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무료 바우처를 받았다. 올해 초부터 "시네고르스크 광천수"의 노인 레크리에이션 및 요양을 위해 지역 예산에서 약 6,700만 루블리가 할당되었다.

## 사할린 마을에 정수 처리장 건설 시작

홉스크 지역의 프라우다 마을에 모듈형 정수 처리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최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장비를 대체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 및 유틸리티 시설을 통해 1,6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늘까지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 구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기존 유틸리티 이전과 새로운 변압기 변전소 설치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주택 공공경리부 세르게이 표도로브 차관이 말했다.

8월 1일에 계약업체가 구조물을 세우고 외부 공급망을 깔기 시작한다. 주요 장비인 하루에 500입방미터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식 수처리 플랜트는 연말, 사할린에 도착할 예정이다.

재건축 공사는 2024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설 비용은 2억 3,700만 루블리 이상이다. 이 자금은 국가 프로젝트인 "주택 및 도시 환경"의 일부인 연방 "깨끗한 물" 프로젝트에서 할당된다.

2022년에는 8억 3천만 루블리가 연방 "깨끗한 물" 프로젝트와 같은 이름의 지역 프로그램에 할당되었다. 지난해 이 프로젝트는 홉스크 지역 체호브 마을의 취수장 처리 시설 건설, 네웰스크 지역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마을 지역의 취수장 재건, 돌린스크의 상수도 시스템 재건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기금은 19억 루블리에 달할 것이다.

## 블라고베센스크, 극동 지역의 인구 문제 논의

"극동과 북극의 인구통계학적 발전"이란 제8회 전러시아 컨퍼런스가 7월 6일과 7일 블라고베센스크에서 개최된다. 극동 및 북극 개발부의 홍보실은 이를 동안 정치인, 학계, 유명 인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 출산율 및 사망률 감소에 대한 지역 모범 사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통계 컨퍼런스는 올해로 8년 연속 개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인구학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의 효과도 평가한다.

## 이 모 저 모

### 전 러시아 취업 박람회, 사할린 주 주민들에게 천 개의 일자리 제공

전 러시아 고용 박람회 "러시아의 사업. 기회의 시간"이 사할린 주 전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950명 이상의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주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지역 전역에서 온 구직자와 고용주가 모였다. 박람회가 운영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약 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박람회에서는 이력서 작성 방법과 면접에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도 사할린 주민들에게 제공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진로 지도 퀘스트도 준비되었다.

"현재 고용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는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건설, 교육, 의료 분야"라고 사할린주 노동고용청의 나탈리아 코발레바 부청장이 밝혔다.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 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도 이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Тысячу вакансий предложил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ярмарк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Федер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ярмарк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абота России. Время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ошел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95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рмарк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обрала соискателей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площадок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около тысячи рабочих мест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ярмарке также проводи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которых сахалинцы узнавали,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оставить резюме и успеш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я на собеседовании. Для д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квесты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В базе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10 тысяч вакансий.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ткрытых позиц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е», — поделилась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овалева.

Отметим, данный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й этап ярмарк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роходит впервые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 쿠릴의 곰이 이투루프 섬의 어린 아이들을 위협

쿠릴의 엄마 곰이 이투루프 섬의 미취학 아동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6월 22일, 큰 엄마곰이 새끼와 함께 쿠릴스크 시의 유치원 "알료누쉬카"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 숲 속 동물들이 울타리 쪽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곰들은 숲 속으로 사라졌다. 유치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쿠릴 주민들은 위험한 동물이 유치원에 이렇게 가까이 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산림 및 사냥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 Курильская медведица распугала дошколят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Курильская медведица распугала дошколят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22 июня крупная хищница с медвежонком устроила переполох в детском саду «Алёнушка» в Курильске.

Лесные звери подошли к забору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малыши с воспитателями играли на площадке. Всех немедленно завели в здание, а медведи тем временем скрылись в лесу. Сотрудники детсада вызвали полицию.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а отметили, что никогда раньше хищники так близко к дошко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не подходили. Обращ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в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 러시아에서 로타 바이러스 감염 피해, 94 억 루블로 증가

러시아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2022년에 38% 증가한 94억 루블리에 달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웨도모스티"에서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였다. 지난해 급성 장 감염 사례의 거의 절반이 로타바이러스로 드러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62명에서 발생했다.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발병률은 볼로그다 지역(인구 10만 명당 216.46명),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인구 10만 명당 194.34명), 연해주(인구 10만 명당 188.73명)에서 기록되었다. 특히 1~2세 어린이에게서 발병률이 높는데, 인구 10만 명당 1,063.08명에서 발생했다. 투바와 북오세티아는 미취학 아동의 감염이 각각 35.08%와 30.35%로 가장 높았다.

또한 러시아 전체에서 장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495명에 달했다. 의사들은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 기관지 천식 및 장 질환과 같은 내분비 및 알레르기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면에 계속)



# 그리운 사할린 동포와 함께 아리랑한마당

## 아리랑도시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주관,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아리랑 학교"

이병일/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현 서울 석관중학교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지 4개월이 다 되어간다. 지금은 서울의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현지 사할린 동포들과 여전히 아침마다 여러 SNS에서 인사를 나눈다. 시시각각 소식들은 점심시간이나 오후 퇴근길에서 열어 보고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하트를 보낸다.

지난 11일 주말 아침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국악신문사 기미양 대표님의 초청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사할린에서 귀국하고 처음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을 안고 영주귀국동포들이 사는 경기도 양주 울정마을에 도착했다.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아리랑 학교"가 열린 것이다.

서울에서 양주까지 1시간 이상 운전 전을 하면서, 지난 3년 간 임기를 마친 사할린한국교육원 시간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다.

그 중 많은 추억들 중 '사할린아리랑'은 기미양 대표님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3년 전 7월 중순 국악신문사 기미양 대표님과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이사장님을 처음 만났다. 비자 갱신차 일시 귀국했다가 제4회 사할린아리랑축제 행사를 준비하는 문제로 종로에서 만난 것이다.

현재는 잠시 중단 된 상태이지만 2016년부터 매년 아리랑연합회는 사할린주한인협회와 공동주최로 사할린에서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주관해 오고 있는 아리랑공동체이다. 국내외 55개 아리랑전승단체와 연구단체로 구성된 순수 시민운동단체이다.

그후 일시 귀국 때마다 국악신문사에서 보내주는 한복과 태극선 부채, 태극상모(이담농악), 아리랑음반, 국악음반 등을 사할린 한민족예술동포단체에 전달했고, 아리랑학회에서 주관하는 아리랑학교 프로그램에 수강하기도 했고, 돌아가서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아리랑 특강과 우리말방송 한국의 상징 코너에서 아리랑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미양 대표와는 아리랑 관련 자료와 행사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고, 화상통화로 10월에 내린 사할린 첫 소식은 건네 주어서 국악신문 포토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특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지어준 '아리랑누각'과 '아리랑공원' 건립 소식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국제적 사정으로 매년 사할린아리랑축제 및 아리랑 예술공연 단체가 준비하는 사할린 방문은 무산되었다. 나는 사할린에서 탈춤과 소고춤, 사할린아리랑, 밀양아리랑, 어부놀이 등 민속춤과 아리랑배우기 등을 통해 사할린 동포 및 현지인과 교류를 하였다.

특히 2022년 3월 KBS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50년' 행사에 사할린 동포들 50명과 함께

특별초청 되어 동포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KBS방송 한민족수기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KBS한민족방송에 두 차례 출연해서 사할린 동포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KBS한민족수기공모전 참가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한글교육에 힘썼다.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할린 동포의 존재와 이산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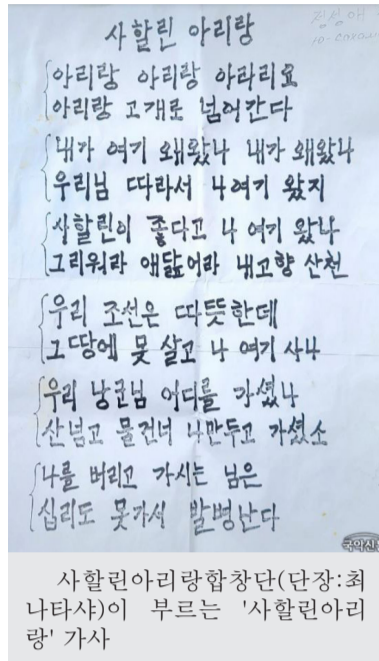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의 러시아어 대화가 들려서 참으로 신기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자꾸 말 걸고 싶은 기분이랄까. 문경에서 도착한 대형버스에서 엠프와 악기, 다듬이, 박스 등이 리어카에 실려서 공연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사할린 어르신들도 함께 손수 나르시고 계셨다. 떡과 수박 등 다과회까지 준비를 해오셨다.

공연 식전 행사에서 인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게 되면, 1세대 어르신들께 큰절을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양주 울정마을 동포 1세대분들께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올렸다. 이어 "아직도 3년간 살다 온 사할린 기억이 생생해서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글을 쓰며 추억한다. 그리고 영주귀국 신청 전에 부모가 사망하시면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2세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가슴이 울컥해져서 머릿속이 멍해졌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닫혀진 대강당 문이 오늘 3년만에 처음 열리게 된 것이다. 한쪽 면은 대형 사이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비치는 공간이라서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무덥지는 않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공연이 이어지면서 다소 습기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할린에서 살다오신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되는 기온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할린에서 체질이 형성된 분들이라 한국의 무더운 여름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늘 이맘때는 사할린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9월 말 즈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했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가지 못하고 3년간이나 한국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다.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회장:이만유)가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은 모두 아리랑판이다. 울정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사할린아리랑합창단의 '사할린아리랑' 합창으로 첫 막을 열었다. 이후 왕십리아리랑보존회 이혜술 회장과 회원들이 '왕십리아리랑', 동두천아리랑보존회의 '동두천아리랑'을 불렀다.

2부는 문경에서 오신 40여 명의 아도위 회원들이 준비했다. 아도위합창단과 아도위연주단이 밀양아리랑,



사할린아리랑합창단(단장:최나타샤)이 부르는 '사할린아리랑' 가사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홀로아리랑 등 다양한 아리랑을 연곡으로 불러 주시고, 문경새재아리랑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단이 트롯트를 선사했다. 동포들이 무대에 나와서 우리 전통 춤사위와 러시아 민속 춤사위로 춤을 추기 시작해서 신명을 높여 주었다. 트롯트에서 빠른 비엔나 왈츠, 블루스 등을 망라한 춤판이 이루어졌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노래보다 춤을 더 즐긴다. 우리가 노래방을 좋아하는만큼 그들은 춤을 즐기는 민족이다. 휘날려 춤판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춤을 추시고 기뻐하셨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오랜만에 모여서 추어보는 춤이라고 하시면서...이러한 자연스런 파티 풍경은 사할린에서 근무하는 동안 너무나 낮은 어울림이어서 참으로 오랜만에 그리운 사할린 추억으로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문경시민들은 동포 분들께 드릴 정성이 담긴 선물도 듬뿍 가져 오셨다. 문경시장이 보낸 아리랑 책자, 문경특산물 오미자 와인, 오미자김 등을 뒷풀이에서 풀어 놓기도 하셨다. 직접 만든 생강조청을 준비하신 문은자 여사님의 정성이 대단하다.

기미양 대표님은 사할린아리랑축제추진단장으로서 '아리랑'을 매개로 현지 사할린 동포와 전국 여러 지역의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신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분들의 성함과 얼굴, 모스크바에서부터 사할린에 사는 친인척 관계에서 겹사돈 관계까지 거의 알고 계신다. 그동안 사할린 원로 교육자고 공노원 선생의 안내로 안산, 인천 등에 사시는 많은 사할린 사람들을 만나서 강제동원과 가족사에 대한 기록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대대표님과 공노원 선생의 안내로 2017년 사할린 이산의 역사가 다큐로 방영되고, 국내외 사할린 동포들에게 KBS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 참가를 널리 알리고 계신다. 사할린 동포들의 디아스포라의 아픔이 공중파와 출판물 통해 소개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매년 대



(사진) 사할린동포들이 준비한 축하공연으로 첫 막을 열었다. 사할린아리랑보존회 최나타샤 회장과 회원들이 김세르게이 작곡가의 아코디언 반주에 맞추어서 부른 사할린아리랑 합창(지휘:박종철)이 울려 퍼졌다. 2023.06.11.



(사진) 행사를 마치고 사할린아리랑보존회와 아도위의 기념촬영. 사진은 첫째줄이 사할린아리랑보존회, 뒤줄이 아도위 회원들과 내빈들. 2023.06.11.

상 수상작은 사할린 동포들의 이산의 고통이 담긴 가족사이다. 작년 대상 역시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수강생 김경순(77세) 어른이 수상했다.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일간 개최된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사할린아리랑무용단과 사할린아리랑합창단이 대상과 금상을 받았다. 현재 사할린아리랑양상불(단장:박영자), 오늘 만난 양주 울정마을 사할린 동포로 이루어진 사할린아리랑보존회 합창단이 수상한 것이다. 당시 하바롭스크아리랑보존회 게나김 단장도 초청되어 무대에서 '카레이스키아리랑'을 부네가 같이 불러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흩어진 한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리랑을 매개로 활발한 개방과 교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국제정세로 인하여 문화적 교류의 중단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아리랑을 매개로 문경시민들과 사할린이 연결된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시작의 의욕을 신

선하게 일으키는 날이다.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문경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있는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의 활동이 놀랍다. 이만유 회장의 특강에서 정선아리랑,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처럼 온 국민이 문경새재아리랑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진정성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먼 길을 와 주신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 왕십리아리랑보존회, 동두천아리랑보존회, 한편 이혜술 왕십리아리랑보존회 회장님은 병원 입원 중에도 양주까지 오셔서 공연이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재입원하셨다.

사할린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할린아리랑보존회 및 울정마을 어르신들, 오늘 사할린과 문경의 만남을 순조롭게 이어주시는 국악신문사 기미양 대표,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동행 등, 애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다음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며.

특집부 kukuak2020@naver.com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21 июня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Вениамин Пак совершил рабочий визит в село Леонидов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тдела с. Леонидово обследован памятник истории, посвященный жертвам массового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ми милитаристами 17 августа 1945 г.,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На встрече с мэром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в части облагоражи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вокруг памятника.

◆ 23 июня активисты Углегор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ООСК (руководитель Ю.Е.П.)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Тано (단오 –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5-го числа пятого месяц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аздник Тано включен ЮНЕСКО в список шедевров устного и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В 2023 году праздник выпал на 22 июня.



Активисты Углегор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устроили праздник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берегу моря, в районе новой обустроенной пляжной зоны. Новость об этом выложена в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 22 июня члены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Углегор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н Су Боги) отправили очередные посылки бойцам, принимающим участие в СВО. А 26-го июня начали плести новую партию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СК Инфо».



◆ 23 июн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годовщине акции «Все для Победы»,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ОНФ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ой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Женщины-активисты показали мастер 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жареной кимчи со свиной, с тушенкой и колбасой,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в мае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илась к помощи бойцам СВО: в офисе организации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плет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для боевой техники.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ждый день.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члены ЮСМООК, но и вс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правлено 5 комплектов сетей, готовы к отправке еще 4 комплекта,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зор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 В Сеуле прошла лекция «История резни на Карафут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екции, прошедшей 21 июня в Музее колониальн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Сеул). Лекцию прочитала Юлия Дин,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комментатором ста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г.Сеул) Бан Иль Гвон,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своим изуч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Лекция прошла в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формате, ведущим стал Чхве Сан Гу,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организации KIN.



Лекц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ажной и сложной тем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массовым убийствам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или на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в августе 1945 г. Эти события относятся к тому периоду, когда Красная армия проводи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наступательную операцию, и пока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вигались по острову, до прихода их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японцы начали массово убивать корейцев, распространяя слухи, что корейцы лояльны к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и могут быть ее шпионами.

Изучением этой темы Юлия Дин занялась недавно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давно знали про эти прискорбные события, ученые не могли провести нау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их событий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документы были засекрече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рхив УСФ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екретил массив документов –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л японск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по которым они были осуждены советским судом, и передал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копии в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Большую ча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оставляют материалы следственного дела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Пожарское), в которой 18 японск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убил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орейцев, включая женщин и малолетних детей. Также были переданы музею документы о убийстве в Камисиска

(Леонидово) и Усиро (Орлово).

Ю. Дин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а о составе документов, о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на Сахалине, о том, что историки могут и не могут подчеркнуть из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Был освещен и важ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вопрос в рамках этой темы – сколько именно человек погибло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Историк приводила аргументы в поддержку версии о большем количестве погибших, чем изначально фигурировавшая цифра 27 человек.

Слушатели, которы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 лекции, а также те, кто слушал лекцию онлайн,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содержал рассказ и о случае убийства родственника, который передавался в семье погибшего. К сожалению, такие рассказы часто приходят к нам из устных источников, ч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не были случайными эксцессами, а были массовыми и характеризуют обстановку на Сахалине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чень опасную для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Те, кто не смог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лекции,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ее запись на площадке интернет ресурса Youtube.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 Путь к успеху — 2023

Москва, 26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В сердц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России — технопарке «Сколково» состоялся II Евразийский чемпионат дет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уть к успеху — 2023».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чемпионата выступили Фонд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детям»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и недавно созданная структура МДКМ «Цент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также оказала с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чемпионата,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гласила в качеств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артнеро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 клубов (ОКБК).

Более 250 лучш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х идей и стартапов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презентовали школьники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Евразии, в том числе де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азахстана,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на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ОКБК.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е чемпионата состоялась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на которой выступил директор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Павел Пай,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лекции.

«Молодежь – это двигател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 Росс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реди молодеж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по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 также субсидии и гранты, которые дают суще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развитие проек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обытие Павел Пай.

«Очевидно, что потенциал молодеж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ысок и у него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Молодежь легче идет на риски, она более идейная и дерзкая. Поэтому, нужно и дальше наращивать вовлеченность молодежи 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и обучать их этому» — мнение члена жюри Ланы Тянь.

«Отдель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МДКМ в лице его лидера Павла Пая. — Надеюсь на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ы рады и благодари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го чемпионата, которые приглас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дете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 подытожил события президент ОКБК Сергей Ин.

## Открыт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XXIII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Россия),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ТИН-БО» (Узбекистан) и «КАХАК»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XXI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Москве с 24 по 26 августа 2023 г. под девизом «Science as a lifestyle».

-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 математик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 биотехнологии и медицина;
- химия и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 физика и науки о земле;
-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стор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очное и заочное участие.

Возможность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подключения докладчиков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Рабочие языки конференции - рус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ференции необходимо до 20 июля 2023 года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сайте конференции. А также прислать тезисы доклада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ом смотрите на сайте АНТОК.

Тезисы, успешно прошедшие рецензирование,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трудов конференции, индексируемом в РИНЦ. Решение о форме доклада будет приня-

то до 10 августа 2023 г., о принятии доклада к публикации в сборнике трудов конференции – до 20 августа 2023 г.,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является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озданн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ейцев путем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молодежи, установления науч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споры,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учными сообществам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Ежегод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и семинары АНТОК собирают ученых, инжене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хеньян: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 грани ядерной войны»

Пхенья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бвинил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 подталкивании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 «границе ядерной войны». В комментар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Институтом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Д КНДР, нынешняя военная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сравнивается с ночью перед началом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хеньян обрушился с критикой на РК и США за их «бредовые анти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военн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 риторические угрозы». «Воин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ША усилили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уже погрузилась в крайне нестабильную ситуацию, близкую к грани ядерной войны», –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Пхеньян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вой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ыстро перерастёт в мировую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термоядерную войну», что приведёт к «самым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м и необратим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для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во всём мире.

## Жители РК отметили 73-ю годовщину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25 июня жители РК отметили 73-ю годовщину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защищ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 помощью сильной армии», –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 Сеуле.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патриотизм и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е героев войны навсегда останутся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будет заботиться о ветеранах войны до конца. После войны страна лежала в руинах, но сегодня РК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 добавил Хан Док Су. Напомним о том, что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РК была избрана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а 2024–2025 годы,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даёт Сеулу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и других вызовов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МИД РК призвал полицию Парижа расследовать смерть тури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ризвало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Парижа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расследовать смер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уриста на окраине французской столицы при невыяс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36-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ец, путешествовавший по Франции, найден мёртвым на станции «Вильжюиф-Луи Арагон» парижского метро 12 июня. Семья погибшего,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вернуться в РК 14 июня, связалась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К во Франции.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обратились в полицию, и 16 июня поступил ответ об обнаружении тела в институте судебной медицин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ричина смерти – удар электрическим током при попытке перейт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пути. Тело будет передано семье покойного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точной причины смерти и процедуры опознания.

## Кан Ми Сон из Universal Ballet получила приз Benois de la Danse

40-летняя Кан Ми Сон, солистк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руппы Universal Ballet,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Benois de la Danse,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балетных конкурсов в мире. Она разделила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работа танцовщицы» с Цю Юнтин, солист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лета Китая. Кан Ми Сон исполнила партию вдовы в творческой постановке «Миринаэзил»,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ась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в Сеуле.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прошла 20 июн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сцене Большого театра в Москве. Benois de la Danse – одна из самых авторитетных в мире балетных премий, учреждённая в 1991 год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в честь выдающегося французского хореографа Жана-Жоржа Новерра. Ранее этой награды были удосто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балета Кан Су Чжин в 1999 году, Ким Чжу Вон в 2006 году, Ким Ги Мин в 2016 году и Пак Сэ Ын в 2018 году.

## Глава Netflix высоко оценил каче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ентов

Уровень популяр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ентов на платформе Netflix превосходит все ожидан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еул Генеральный содиректор Netflix, американской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стримингового сервиса фильмов и сериалов, Тед Сарандос. По ег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ство Netflix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долгосроч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южнокорейскую отрасль контентов, учитывая её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умение создавать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стории. 3 млрд долла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инвестированы в течение четырёх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создание контентов и поиск талантливых кадр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режиссёром Пак Чхан Уком Тед Сарандос отметил, что 2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ентов на площадке Netflix будут заполнены за счёт работ новых режиссёров и авторов.

(RKI)

##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Мацегора опроверг сообщения западных СМИ об "умерших от голода на улицах Пхеньяна"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 интервью англоязычному изданию NK News опроверг репортаж британской Би-Би-Си, которая, ссылаясь на показания перебежчиков из КНДР, сообщила о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опрошаек на улицах Пхеньяна и скончавшихся от голода, которые лежат прямо на дорогах. Его информацию подтвердили и другие недавние бывшие в КНДР зарубежные дипломаты. Посол при это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анкции Запада не сломят ни КНДР, ни Россию.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сайте NK News интервью цитируются слова посла РФ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а Мацегоры, который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как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НДР, он должен был бы проигнорировать запрос на интервью,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он исходит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МИ недружественной страны... Однако репортаж Би-Би-Си, который я, конечно же, просмотрел и прочитал, настолько искажа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и настолько далек от правды, что я решил ответить на некоторые ваши вопросы, дабы развеять лож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английские коллеги намеренно или нет могли создать в головах читателей».

Ключево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связан с репортажем Би-Би-Си, звучал так: "Один из источников в Пхеньяне рассказал Би-Би-Си, что на улицах столицы КНДР много попрошаек, и часто их можно найти "лежащими на земле". Когда тела проверяют, то "обычно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они мертвы" – так говорится в репортаже. Каковы Ваш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рогулок по Пхеньяну? Видели ли вы что-либо подобное?"

На это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ответил категорическим опровержением репортажа Би-Би-Си: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ок или поездок по Пхеньяну ни я, ни мои коллеги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и попрошаек, лежащих или бродящих по улицам". Он добавляет, что в Пхеньяне нет даже пьяных, кто лежит на улице, "как это час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в столицах других стран".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в КНДР - прим. Ред.) кто-то упал на улице, а люди бы проходили мимо и не помогли бы такому человеку", – говорится в интервью.

По поводу наполненности полок магазинов Мацегора отмечает, что на прилавках много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 зерновых, бобовых, картофеля, мяса, курицы, яиц, фруктов, овощей и пр. В связи со снятием некоторых анти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магазинах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рыбы, так как рыбакам снова разрешили выходить на промысел в море.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о наличии в аптеках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 этом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не отрицает, что у КНДР есть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Ситуация с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непростая,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и само признает. Но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этого –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днако эти трудности не могут идти ни в какое сравнение с ситуацией "Трудного похода" (неурожая 1990-х, который привел к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жертвам в КНДР – прим. Ред.). В то время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тогда я тоже был в КНДР и могу сравнить. Сейчас же нет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голода", – говорит он. Посол также отмечае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обраща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шения задач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Он также обвиняет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КНДР полностью бы справилась со всеми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если бы не санкции. Снимите санкции или хотя бы ослабьте их частично, дайте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возможность легально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уголь, железную руду, морепродукты. Позвольте им открыть в банках счета, куда они смогли бы положить честно заработанные два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и на эти деньги они могли бы купить 500 тысяч тонн зерновых, 300 тысяч тонн удобрений, 100 тысяч тонн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40 тысяч тонн пестицидов, трактора, комбайны. Позвольте таможне ввозить эти товары в КНДР, не преследуйте тех иностран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ставщиков и перевозчиков, к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связ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тогда вопрос с питанием населения КНДР решитс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 подчеркивает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месте с тем дипломат признает, что "Запад никогда не пойдет на это. Потому что чем хуже здесь у нас (в КНДР – прим. Ред.), тем лучше для них (на Западе – прим. Ред.). Запад просто хочет сделать жиз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ак можно более сложной, чтобы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едоволь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осстания...". – говорит он, подчеркивая в конце интервью, что "то же самое Запад пытается сделать и для моей страны. Но это не сработает ни в России, ни в КНДР".

Отметим, что NK News опросила еще нескольких дипломатов из третьи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также работа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Так, бывший посол Кубы в КНД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итуация в Пхеньяне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была стабильной на момент его отъезда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Кубинец также опроверг информацию, которая содержится в репортаже Би-Би-Си. Третий дипломат,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оторого не сообщается, отметил, что в Пхеньяне нет признаков голода или иного кризиса, хот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озрос уровень дефицита некоторых продук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 Суд установил истину сорока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Сеул, 25 июн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лужбе усыновления Holt Children's Agency предписано выплатить 1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американцу, который был усыновлен в 1979 году, за фальсификацию документов об усыновлении и невыполнение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 защите усыновленных (US\$1 = W1 339).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встал на сторону 48-летнего Адама Крэпсера, который подал в суд на агентство Holt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 лож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его как сироты, прежде чем отправить в США на усыновление 40 лет назад.

Но суд не призн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явив, что нет доказательств, указывающих на то, что оно сыграл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ую роль в усыновлении Крэпсера.

Крэпсер подал иск в 2019 году, утверждая, что агентство Holt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не смогли проверить после отправки его в США, приобрел ли он американ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он жил там в качестве нелегала в течение 37 лет.

В 1979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отправило Крэпсера и его старшую сестру в США, чтобы их усыновила семья в штате Мичиган. Но после шести лет жестокого обращения семья бросила их. Он был разлучен со своей сестрой и усыновлен другой семьей в штате Орегон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ова подвергнуться насилию. Его новые родители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за жестокое обращение с детьми в 1991 году, вынудив Крэпсера жить на улице в возрасте 16 лет.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пустя он вломился в дом своих бывших приемных

родителей, чтобы забрать вещи, которые привез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был заключен в тюрьму за взлом и проникновение.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из тюрьмы Крэпсер работал в ресторане, женился на американке вьетнам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стал отцом. Но его приемные родители не смог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е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ША и когда он подал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2015 году, его судимость стала проблемой, и он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в Южную Коре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десь он воссоединился со своей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ью.

Крэпсер, не владеющий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казал, что не может найти работу и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финансов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Он сказал в интервью СМИ: «Когда я ходил в больницу или магазин, люди спрашивали меня, почему я не могу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хотя я выгляжу корейцем. Моя жизнь с тех пор, как меня насильно разлучили с семьей, стала кошмаро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переехал в Мексику, где живет его жена и дети.

Его юридическая победа может побудить других усыновленных подать аналогичные судебные ис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коло 18 000 корейских усыновленных,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ША, не имеют американ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агентство Holt примет на себя основную тяжесть последствий. Адвокат Крэпсера выразил «серьезное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суд не признал соучаст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разрешении отправки детей на незаконное усыновление.



## На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2» состоялся пуск дожимной компрессорной станции объединенного берегов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ПАО «Газпром» Сергей Меньш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ства «Мицуй» и «Мицубиси»,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Роман Дашков. Вместе они дали старт началу работы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кта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газовой цепочки – ДКС.

Дожимная компрессорная станция находитс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в районе выхода на берег морск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от платформы «Лунская-А». Объек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компенсации снижения пластового давления в устьях газодобывающих скважин и дальнейшего эффективного освоения Лун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отметил сложность рабо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КС ОБТК, особенно в текущ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 участия зарубежных партнеров.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 внести реаль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энергобезопас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 подчеркнул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В реализац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кта вложен колоссальный труд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многи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решен целый ряд сложных инженерных и логистических задач, учтены вс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внедрено уник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ключевые партнеры и основные участники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КС.

– Несмотря на внешн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 основа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 не только выстояла, но и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грая су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к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мне выпала честь открыть новую дожимную компрессорную станцию. Эт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но и для всей области. Ввод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кта позволи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беспечивать стабильную подачу газа потребителям – их количество растет в регион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газифик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читывая, что горизонт план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а охватывает десяти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уже сегодня думает о будущем,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Дожимная компрессорная станция – это ключев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объект газовой цеп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разработки Лун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н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епараторы, газоперекачивающие агрегаты, компрессоры и аппараты воздушного охлаждения,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высокую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в условиях любой слож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услуги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техниче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объекта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якорный подрядчик и партнер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же обслуживает транссахалинскую трубопроводную систему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Максимальный суточный объем жидких углеводородов (нефть и конденсат), поставляемый Обществом, составляет 22,09 тыс. тонн.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точна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ДКС по перекачиваемому природному газу – 56,6 млн ст. м<sup>3</sup> (зимний режим) и 49,4 млн ст. м<sup>3</sup> (летний режим),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Роман Дашков.

##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ейше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зведение важнейшег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ранспортно-объекта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о. Открытие аэровокзала ожидае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гда будут получе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заключения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и 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Комплекс позволит с комфортом обслужить до 5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 это в пять раз больше, чем сейчас. 28 июня объект пос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в аэровокзале происходит настройка электронных систем,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пущены табло, экраны и досмотр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дготавливаются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 Сегодня я осмотрел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омещения аэропорта.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масштабы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ы впечатляют даже самых опыт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технологично и уютно. Запуск объекта станет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ом для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едь авиация для нас – самый удобный и

быстрый способ связи с материком. Кроме того, новый аэропорт будет мощным катализатором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и улучшения связей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и странам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 аэровокзал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мый вместительный.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 более 4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 1600 пассажиров в час. В год он способен обслужить до 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Аэропорт возведен с огромным запасом на долгие годы.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на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сделать его максимально уютным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м к пассажирам,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горь Шубейко.

В новом аэровокзал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26 стоек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стор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зоны ожидания вылета с розетками для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возле кресел. Самая технологичн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истема обработки багажа имеет протяженность более 1 километра.

Инвестор, который в 2021 году выиграл открытый конкурс на право достройки аэропорт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 проект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Благодаря перепланировке внутренних галерей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вдвое больше пассажиров, че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ли 11 выходов на посадку вместо 7, 50 кабин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место 14, 8 пунктов досмотра вместо 6.

Преобразилась также архитектурная концепция прилегающей площади.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она будет напоминать побережье морского залива с кромкой прибрежной зоны. Помимо эстетической функции, такое планировочное решение позволит оптималь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и пешеходные потоки,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 максимальную ветровую защиту пассажиров.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же разверну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Она обеспечит прием всех типов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вышения категории аэродрома будут снижены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метеоминимумы, что приведет к повышению регулярности рейсов,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величи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 Более 1000 подъездов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одолжаю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е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более 1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этого числа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как капитальному, так и текущему,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орог. Ход рабо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ервой точкой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стал дом № 50 «А» по улице Есенина. Здесь губернатор и мэр пообщались с жителями о недавно проведенном ремонте в подъезде. Стены и пролеты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и пригласили художников. Теперь пространство украш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пейзажи в морской тематике.

–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результатом. Вообще у нас всегда чисто, убирают регулярно и в подъезде, и во дворе, тщательно за этим следим и стараем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рядок, – поделилась старшая по дому Надежда Вострикова.

Напомним,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подъезд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белка и покраска стен, тамбурной двери, замена и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ерил, установка почтовых ящиков, монтаж кабель-каналов для проводов. В некоторых домах, где жители хотят создать уют в подъезде, на лестн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появляют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росписи на стенах, картины и комнатные растения. Люб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субсидию на возмещение 5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ремонт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иду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по региону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уже более 1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то есть мы превзошли рекор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делаем 4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делаем столько же, чтобы везде был порядок.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и по озеленению.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идеть результат, это отмечаю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но и все приезжие го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м временем во дворе домов 63 «В» и 63 «Г» приступили к финальной стад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Уже оборудованы новые тротуары и отмостка у домов.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чн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проезжих частей. Контрак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до 1 августа, но их выполняют раньше.

Отметим,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 менее 1200 дворов. Только в одн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600 дворов, что в 1,5 раза больш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увели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и ясность существующе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для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ца.

– Мы с Валерием Игоревичем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ем во дворы, и жители делятся с нами радостью, они и сам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емонте подъездов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месте с тем, в городе активно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В текущем

режиме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около 600 территорий, еще более 25 – ремонт капитальный. Такие масштабы позволяют претворять в жизнь грамотно выстроенн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Финальной точкой объезда стал участок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от одноименной площади до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где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верхнего слоя асфальта, а также бордюров и тротуаров. Как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компании, все материалы завезены, рабочих хватает. Объект будет сдан до 15 июля.

##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оздали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РОСТ»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бывшем здании «Ростелекома», теперь размещается галерея и мастерские молодых мастеров кисти и карандаша. Это еще один значимый шаг в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гостей нового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тие «РОСТА» ознаменовалось запуском выставки «Целительная сила искусства».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ее 50 работ 20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Галерея открыта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каждый день, кроме понедельника, с 10 до 18 часов. Вход свободный.

– Всего пару месяцев назад талантливые сахалинские мастера попросили площадку, где они могли бы творить и выставлять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думано – сделано. Теперь у нас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Желаю художникам своим искусством нести добро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нашей области. Пусть ваши работы находят благодарных ценителей и покупателей. У нового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символичное название – «РОСТ».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оно поможет нашим автора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и продвигатьс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план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буд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персональных и тематических выставок мастеров кисти и карандаша. Экспозиции планируются обновлять каждый месяц.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художниками и их творчеством, но и приобрести понравившиеся картины. Также здесь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твор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 мастер-классы, лекции, экскурсии.

15 художников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местить свои мастерские в новом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Одна мастерская оставлена «свободной» – в ней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занима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А в «синей комнате» разместилась открытая библиотека с литературой об искусстве.

– Каждый автор сам выбирал и оформлял свою мастерскую под свое мироощущение. Здесь художники будут пускать посетителей в свой мир, знакомить со своим творческим методом. «РОСТ» – также площадка для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к искусству, куда можно прийти порисовать или узнать что-то новое,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Одной из тех, кто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у идею о создании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молодых художников, была Виктория Емельянова.

– Я ожидала чего угодно, но не такого шикарного подарка. Была готова к старому зданию под снос: через год его не будет, а пока можете здесь порисовать. Но то, что мы получили просторное помещение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и с какой скоростью все решилось, это просто удивительно. Дома масляной живописью заниматься нельзя. У нас однокомнатная квартира, животные – все будет в краске плюс запах. А теперь в своей мастерской большие творческие планы. Хочу работать с крупными холстами и развиваться в изображении человека с натуры, – поделилась Виктория.

В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она делится мастерскую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мужем-художником Владимиром Березовским.

– Помещение мы получили в прекрасном состоянии. Просторно, светло, а свет очень важен для живописи. Хотим только побелить стены, чтобы все выглядело свежее, и сделать гардины для развешивания работ. Но глобально ничего менять не нужно. На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 добавил Владимир.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состоялся ряд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ценителей прекрасного. В ма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аукцион, где три десятка творцов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150 произведений живописи, график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Часть картин сразу же нашла своих покупателей. Экспозиции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иобретения понравившихся произведений внедряются и на различных бизнес-площадках.

Месяц назад открылся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 новая галерея развернулась в самом популярном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 островах. В «Сити Молле» обустроили также мастерские для именитых авторов – членов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перв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худож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ая афалина», итоги которого подведут в сентябре. Лучшие работы отправя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островам, а часть из них пополн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중앙아 횡단팀의 우즈벡 여정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중앙아시아 횡단팀은 이틀간 카자흐스탄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3일차인 6월 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했다.

가장 먼저 6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고 있는 세종학당(원장 허선행)에 도착했다.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 기원을 담은 그림 카드를 그리는 행사를 진행했고 최종 5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그리고 9명의 학생들과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통해 요즘 고려인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그들의 꿈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됐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모두 단순히 K-Pop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30여년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허선행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꿈의 언어"라면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지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 주역이 될 세종학당 학생들이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그리고 훗날 통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빛나는 눈동자를 통해 무궁무진한 그들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었다.

4일차인 6월 20일, 중앙아시아 횡단팀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원장 최성정)을 방문했다. 아리랑요양원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2010년 개원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을 방문한 횡단팀은 멀리 타국에서 한민족의 긍지를 잃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며, 타민족에 모범을 보여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했다. 횡단팀은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간식과 미용, 네일 관리, 마사지 등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중 네일 관리가 여성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박광식 색소폰 연주자의 공연은 어르신들과 횡단팀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고된 시기를 견디고 오늘의 고려인 공동체를 있게 해주신 선배 한인 디아스포라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한국인의 따뜻함으로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중앙아시아 횡단팀은 구소련의 대표적인 고려인 지도자였던 황만금 회장의 집단농장을 향했다.

농장 내의 박물관에서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며 당시의 농장 속 고려인의 사회상과 황만금 회장에게 사회노동영웅 칭호를 가져다준 뛰어난 지도력의 결과물들을 관람했다. 황만금 농장은 당시 사회주의국가 대통령들은 모두 방문했을 정도로 칭송 받는 장소이다.

횡단팀을 안내를 해주신 황 폴리나 티모페예브나 씨는 "대통령이 옥수수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학생들과 시상식 후 (사진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었습니다. 세계에 그런 옥수수가 없었습니다. 옥수수를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지, 6미터에 달했습니다. 옥수수 하나가 43센티미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그 옥수수를 보내줬습니다. 오직 고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죽도록, 죽어도 한다.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 힘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려인은 눈치도 빠르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사람들은 착하고 친절합니다. 음식 없어도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며 나눠먹자고 합니다."라며 일화를 통해 고려인의 근면성실함과 강인함을 소개해주었다.

고달픈 역사의 고통을 딛고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주류사회를 이끌어가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주소를 떠올리며, 그동안 닿을 수 없었던 고려인이 한민족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황만금 농장 방문에 이어 '한국 문화 예술의 집'에 방문했다. 2019년 개관한 타슈켄트 한국 문화예술의 집은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자 양국 우호의 상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을 위해 3만㎡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고려인 가무단의 화려한 부채춤을 시작으로 고려인과 우즈벡 현지인 학생들이 연합해 결성한 케이팝 동아리는 한국 아이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고려인 가무단은 한국의 전통공연 못지않게 현대무용공연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선보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무대를 장식한 고려인 4세 가수 신 갈리나는 18세 때 청춘가무단에서 가수생활을 시작해 펍박 속에서도 늘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공훈 가수 칭호를 받은 유일한 고려인 가수이다. 신 갈리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나의 코리아'는 영원한 고향인 코리아가 한겨레 한민족으로 다시 이어지는 미래의 통일 코리아를 꿈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단팀은 같은 염원을 기원하는 고려인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일차 마지막 행사로 타슈켄트 고려인 자문위원 통일 간담회를 갖고 담소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3일차인 6월 21일 중앙아시아 횡단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고려인 자문위원들과 통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사마르칸트로 이동했다.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유라시아 횡단팀은 당초 파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여정을 기획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여정을 축소했는데, 이번 여정에서 기존의 기획과 같은 구간의 열차에 탑승해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신형열차의 놀라운 서비스와 안락함도 여정에 즐거움을 더했다.

사마르칸트 기차역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실존인물로 등장한 독립유공자 왕산 허위 선생의 증손자이자 한국문화센터 센터장인 Ten Vyacheslav 씨가 고운 한복을 입은 고려인 동포들과 39도의 더위 속에서 꽃과 함께 횡단팀을 마중 나왔다. 환영단이 준비한 행사를 보고 난 후 고려인식 식사와 초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고려인의 교육에서 강조됐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구한말 의병장이던 왕산 허위 선생의 증손자인 Ten Vyacheslav 씨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증조부의 가르침대로 항시 몸가짐을 조심하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그림냐는 질문에, 소아과 의사인 최명희 씨와 회계사 최마리사 씨는 "지금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제는 한국 왕복을 하고 있지만 늘 한국이 그림다"고 대답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민족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고려인이 특별하다. 고려인이 자랑스럽고 우즈베키스탄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감동과 놀라움과 희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중앙아시아 횡단팀은 화기애애하게 마지막 행사를 마무리했고, 다음날인 6월 22일 다시 알마티로 돌아가 각자의 나라로 귀국했다.

선배 한인디아스포라인 고려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몸소 체험하고 미래의 희망어린 모습도 짐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여정에서 다양한 한민족의 현재를 경험했지만, 한국인의 정신과 민족성은 험난하고 굴곡진 역사의 흐름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깊이 공감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정에서 만난 모든 동포들이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모습을 통해 고려인이 앞으로 남북한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모두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점배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재외동포신문)

### [우리말로 깨닫다]

## 검붉다는 말의 매력

비통사적 합성어(非統辭的 合成語)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문법 용어를 써 놓고 뒤에 매력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은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문법이, 용어가 매력적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달리 비추일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용어에 매력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선 비통사적 합성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비(非)가 붙어 있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사적 구성이 아닌 합성어라고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즉 우리말 문장 구성에 맞지 않는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나 형용사가 뒷말을 꾸미려면 어미가 필요합니다. '넓은 집'처럼 표현해야 통사적으로 맞는 겁니다. '넓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말 단어 구성을 보면 어미 없이 합성이 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는 '늦잠, 껌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통사적으로 바꾸면 '늦은 잠, 껌은 쇠'가 되어야 합니다. 좀 어색하지요.

또한 동사나 형용사가 이어질 때는 주로 '-고'가 붙습니다. 즉 넓다와 크다가 합쳐지면 '넓고 크다'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넓크다'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고' 없이 어간만으로 합성이 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높고 푸른 것을 높푸르다고 하고, 검고 붉은 것을 검붉다고 합니다. '-고'가 붙지 않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검고 푸른 것과 검푸른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구성의 합성어는 지금보다 중세 국어에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접두사라고 할 수 있는 말 중에도 비통사적 합성어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를 들 수 있습니다. '치밀다, 치솟다'의 접두사 '치'는 '치다'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통사적이 되려면 '치어' 즉 '쳐'로 바뀌어야 합니다. 접사는 원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말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치'가 비통사적이어서 더욱 접두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힌트를 천자문 해석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천자문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특히 천자문을 아이가 배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관련된 고사(古事)가 많고, 어휘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첫줄 해석부터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첫 네 글자는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의미인데 만만치 않은 깊이가 느껴집니다. 땅이 누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이 검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다는 표현에 '흑(黑)'을 쓰지 않고 '현(玄)'을 쓴 것도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현의 뜻을 옛 책에서는 '검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의 다른 뜻으로는 '아득하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 중에서 '검고 아득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까마득하다'가 현의 가장 알맞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마득하다는 검다와 아득하다가 합쳐진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에 대한 해석을 일본책이나 한자 사전에서는 '검고 붉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기도 하고 붉기도 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말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붉다'라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검붉다는 검지도 붉지도 않은 색으로 검붉은, 묘한 색입니다. 검은 듯 붉고, 붉은 듯 검은 색입니다. '검푸르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의 느낌은 '검고 푸른' 바다가 아닙니다. 높푸르다는 어떤가요? 높기에 더 푸른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고 푸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비통사적 합성어는 나뉘지 않는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생사(生死)'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표현 '죽사리'가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살이입니다. 우리말 표현을 들여다보면 참 묘합니다. 사는 것을 앞에 두지 않고 죽는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죽사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언만 봐도 돌은 떨어뜨릴 수 없는 느낌이 납니다.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할 때도 있고, 죽어도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있기도 합니다. 죽사리라는 단어가 참 매력적입니다. 앞으로도 삶 속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Ущерб от рот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России вырос до 9,4 млрд рублей

Ущерб от рот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вырос на 38%, составив 9,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ают «Ведомости» со ссылкой на доклад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всех случаев острых кишечных инфекц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вызвана ротавирусом,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62 человек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рот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было неравномерным.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216,46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194,34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и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188,73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Особенно высокая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отмечена среди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одного до двух лет, где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063,08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В Туве и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среди детей-дошкольников была наиболее высоко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35,08% и 30,35%.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мертность от кишечных инфекций в целом в России увеличилась на 8,1% в 2022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достигнув отметки в 495 человек. Врачи отмечают, что ротавирусная инфекция может вызывать различные осложнения, включая эндокринные и аллерг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такие как бронхиальная астма, а также нарушения функции кишечника.

### "Сахалинских крыльев" 축제 Сахалин 지역에서 부활

항공 및 음악 페스티벌 "Сахалинских крыльев"가 3년 만에 сахалин 지역에서 부활한다. 행사 재개 결정은 알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주 주지사가 내렸다. 올해 축제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발전과 여가 활동을 위

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문화 행사 및 장소의 가용성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콘서트, 전시회, 갤러리,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욕구이며, 일선 사역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적인 형태의 문화 레크리에이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음악 및 항공 페스티벌 "Сахалинских крыльев"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스티벌에 сахалин 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행사 조직팀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이 대규모 행사는 2011년 스타로루스크코에 비행장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코르사코프 지역의 푸쉬스티 비행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 축제는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모이는 행사이다.

여러 해 동안 "아리아", "알리사", "멜니차", "아니마찌야", "시보드냐 노추", "크레마토리", "차이프", "우마 투르만", "치즈", 나이크 보르조프, 인근 지역 음악 그룹, 일본 및 현지 밴드 등이 축제를 위해 공연을 펼쳤다. 페스티벌 참가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다.

음악 공연장 외에도 풍선, 모토 프리스타일 코스, 18대 이상의 민간 및 국방부 항공, 낙하산 시범, 탱크 사격, 군 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로 모든 방문객을 만족시켰다.

"Сахалинских крыльев" 행사 장소는 올해에도 푸쉬스티 비행장이 될 예정이다. 스포츠와 전시, 문화, 군사 및 애국, 무역 및 박람회, 관광 및 교육 등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섯 가지 영역이 сахалин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озрождают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Фестиваль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осле трё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озрожда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шение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с 18 по 20 августа.

– Мы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уг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 наших жителей есть четкий запрос на доступность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лощадок. Они хотят посещать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галереи и музеи. Это хорошее и абсолютно правильное желание, и мы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ег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системно выстраивая работу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Не забыты и массовые форматы культурного отдыха. Теперь, когда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ена,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возрож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музыки и авиаци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риглашаю островитян посетить его. Для отдыха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Уже сейчас коман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еде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первы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дрома «Старорусское» в 2011 году, а позже сменило место дислокации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Фестиваль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обирает более 5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В разные годы дл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али «Ария», «Алиса», «Мельница», «Анимация», «Сегодня ночью», «Крематорий», «Чайф», «Ума Турман», «Чиж», Найк Борзов, музы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Японии и местные команды.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превысило 3000 человек.

Также всех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встречали помимо музыкальной и другие площадки - воздушные шары, мотофристайл, частная авиация и авиа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 свыше 1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арашютистов, танковые стрельбы, выставка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этом году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Крыльев Сахалина» вновь станет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Островитян будут ожидать шесть зон, где каждый сможет найти себе занятие по интересам –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ая и выставочная, культурная,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торгово-ярмарочн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